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 대각국사가 출가하고 열반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가 천년의 베일을 벗고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천태종에서 영통사 복원에 쓰이는 46만장의 기와를 지원하게 된 인연으로 현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정겨움과 어색함이 공존하는 북녘산하



12월 1일 3차 기와 지원단과 함께 오전 9시 도라산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여 남측 구간을 넘어서니 '여기부터는 개성입니다'라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개성 시내까지는 18km의 거리이니 바로 지적이다. 북측 출입국 관리소 병사들의 무뚝뚝함이 긴장을 자아내고 시간을 끌었지만 처음 찾는 북한의 산하는 화창한 날씨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우리 일행이 지나가는 농촌과 도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었다. 소 닭구이나 조그만 손수레를 끌며 집을 나르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일행이 흐드는 손에 답례하여 손을 흔들며 주기도 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숨어서 훑어보기도 한다. 벌써 3차례 기와 지원 차량을 보니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비록 남루하지만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움도 묻어났다.

하지만 이어진지 오래되어 이미 낡은 커다란 건물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목마다 커다랗게 쓰여져 있는 붉은 색의 구호들은 다른 세상과 있음을 깨닫게 했다.

고층에 의해 복원되고 있는 불사현장



영통사가 내려다 보이는 마지막 언덕에서 멀리 바라보는 영통사는 오관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웅장한 사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영통사를 감싸고 있는 오관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보배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불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영통사에 도착한 일행은 대각국사 비석 앞에서 물품 인도 인수서에 서명하는 간단한 전달식을 가졌다. 사찰의 희망 곳곳에는 아직 울리지 못한 기와와 양생준인 기와들이 쌓여 있다.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가까이서 본 공사 현장은 매우 거칠었고, 아직도 많은 공정을 남기고 있는 듯 했다.

우리를 안내한 복원공사 총감독 김영균(金永均)씨는 역사적인 영통사가 절절한 고층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각국사비와 5층석탑과 동삼층탑, 서삼층탑, 당간지주만이 남아있던 곳을 지난 98년 일본의 다이쇼(大正)대학 고고학팀과 함께 발굴작업을 벌여 5-6미터 지하에 묻혀있던 기초를 발견함으로써 본격적인 복원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간평 3400평에 이르는 고려왕실 원찰

영통사의 총 부지는 6만 평방미터, 복원되는 28채의 건평은 총 3400평방미터다. 복원된 영통사 가람배치를 보게되면 좌측을 중심 축선으로 하여 당간지주를 왼쪽으로 두고 남문이 있고, 이 문을 지나면 중문이 나온다. 중문 양옆으로는 종을 걸 종루와 경루가 세워져 있고, 중문 안에 부처님을 모신 보광원이 자리하고 있다. 2층 양식의 단일 건물인 보광원은 대웅전에 해당하는 건물로 영통사에서 가장 큰 전각이다. 보광원 앞에는 오층석탑이 서 있고, 양옆으로 삼층석탑이 함께 세워져 있다. 그런데 석탑들은 아직 제자



개성 영통사 복원 현장

# 도량 장엄... 통일 가까이

대각국사 출가·열반한 성지  
천태종, 46만장 기와 지원  
평화통일 한 몫 자부심



◇현장 복원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개성 영통사 전경(위)과 주법당에 해당하는 보광원(아래). 대웅전이 복원되기 전 터를 지키고 있는 3기의 석탑(가운데)이 애처로워 보인다.

리를 못잡은 듯 보광원 앞에 너무 바짝 붙어 있다. 3개의 석탑은 기단과 상륜이 모두 유실되었는데 이를 복원하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형상이 되도록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광원 뒤로는 중각원이 들어서 있다. 중각원은 경을 강하던 강당으로 고려사에도 50여차례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중각원 뒤에는 일명 행궁이라고 부르는 승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승복원은 고려 왕실에서 영통사를 참배하러 왔을 때 왕들이 묵었던 행궁으로써 사찰과는 별도의 회랑을 통해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영통사가 고려 왕실에서 어떤 사찰보다 많은 참배를 다녀간 사찰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통사가 고려 왕실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려 태조 왕건때 부터이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집안을 부흥시킨 왕씨의 발상지인 이곳에 조상들이 지었던 조그만 암자를 승복원이라 이름의 국가 사찰로 만들었다가 다시 확장하며 영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연유로 영통사는 고려왕실의 원찰이 되었으며, 왕자였던 대각국사의 출가도 영통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천년모습 대각국사 부도·묘터 남아



당간지주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대각국사의 부도를 모신 경선원이 자리잡고 있다. 대각국사의 부도는 천년의 모습을 간직한 옛모습의 축대와 계단위에 모셔져 있어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남측에도 선암사의 대각암에 대각국사의 부도가 모셔져 있다.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대각국사를 가리는 역사적 사실만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영통사에는 대각국사의 묘소가 남아 있다고 한다. 1101년 열반에 든 대각국사 유허를 20년이 지난 1121년 대비하여 부도를 모시고 1125년에는 대각국사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동종문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묘터가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영통사는 그 자취들만으로 세월을 거슬러 오르게 한다. 영통사 입구에 있는 영통교 밑에는 큰 바위에 오관산 영통동문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곳이 오관산 영통사 입구라는 것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정경은 조선 후기의 화가 강세황이 그린 진경산수화인 <영통동구도(靈通洞口圖)>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북이 한 마음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인 영통사를 복원하는 일에 나서고, 통일불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천태종의 통일기와 지원불사는, 첫걸음은 미미할 지라도 남북 평화통일을 여는 밑줄기를 뜨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남북이 하나되어 손을 맞잡는 날, 영통사는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도움말-한기선 편집부장 <월간 금강>**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화) (02)737-8881(대) Fax: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여시아문**

서울대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 내사주 내가 풀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운은? (실전문어면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10千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己土: 부드럽고 낮은 땅	· 寅木: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未土: 문화의 산물을 저장할 증계하는 장소
· 乙木: 옆으로도 퍼지는 힘	· 庚金: 거친 원광석	· 卯木: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申金: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丙火: 밝게 빛나는 광선	· 辛金: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辰土: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酉金: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丁火: 조용히 타오르는 불	· 壬水: 시원하게 흐르는 물	· 巳火: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戌土: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戊土: 광활하고 거친 대지	· 癸水: 이슬 같은 생명수	· 午火: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亥水: 생명이 숨쉬는 얇은 바다
			· 子水: 고요하고 깊은 바다

임태근 지음 / 46매면 / 336면 / 값 12,000원